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기사인쇄하기

대한민국  
지각브리핑

# ' 좋음' 212일, '매우 나쁨' 0일... 우리나라 하늘 지난해 가장 맑았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2025.02.2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2024년 우리나라 대기질이 관측 이래 가장 깨끗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4년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 $\mu\text{g}/\text{m}^3$ 로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25.2 $\mu\text{g}/\text{m}^3$ ) 대비 38.1%, 전년(18.2 $\mu\text{g}/\text{m}^3$ ) 대비 14.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가 ' 좋음'인 날도 지난해 212일로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다. ' 좋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일평균 15 $\mu\text{g}/\text{m}^3$  이하인 날을 말한다. ' 나쁨'(전국 일평균 36 $\mu\text{g}/\text{m}^3$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mu\text{g}/\text{m}^3$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mu\text{g}/\text{m}^3$  수준이었다. 제주와 전남이 가장 낮았고 강원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으로 2015년 대비 54.8%(35.4→16.0 $\mu\text{g}/\text{m}^3$ )나 줄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 효과와 더불어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면서 "특히 국내 정책 측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전 부문에 걸쳐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율(단위: %, 2015년 측정 대비)



#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2025년 07월 16일      수요일      날씨 ☁️ 흐림.

## 기사를 보고 느낀 점.

정말 반겨온 소식이었다. 2024년 우리나라 대기질이 만족 아래 깨끗하다는 사실을 접한 안도감을 느꼈다.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하늘이 밝명던 날이 외출하려고 꺼려졌는데, '좋음'인 날이 212일이나 되고 '매우 나쁨'은 단 하루도 없었다니,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빙 풀리는 기분을 느꼈다.

또한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과거 우리나라 대기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다. 2015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5.2µg/m³였다는 수치를 보니, 그때시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분을 마시며 지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나쁨'이나 '매우 나쁨'인 날이 잦아오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다.

허저만 지금은 '좋음'인 날이 212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매우 나쁨'은 단 하루도 없는 사실에서 환경 개선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 앞으로의 대기질을 위한 나의 다짐.

- 텀블러 사용 생활화  
일회용 컵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텀블러를 항상 휴대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다.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확대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더 자주 사용한다.
- 에너지 절약 실천  
사용하지 않는 불 끄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에너지 절약 습관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다.
- 친환경 소비 지향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활용 가능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를 지향할 것이다.

## <AI의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 03. 안쓰는 플러그 뽑기

한일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안쓰는 플러그를 뽑았다.  
느낀 점.

이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 낸 변화를 상상하니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대기질 개선 소식에서 비롯된,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엔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플러그 뽑기가 지구에 주는 영향  
이 행동은 아주 사소해보이지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지구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안쓰는 플러그를 뽑으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 가스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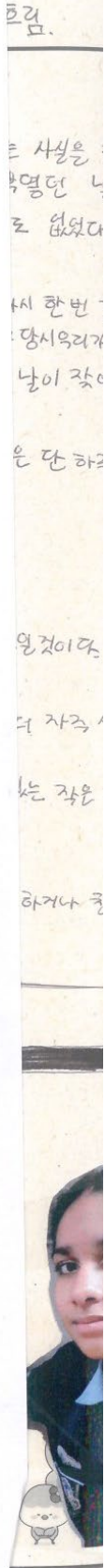


##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 주요 자료 - 임영옥

<대호> 최근에는 이게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6년에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좀 감소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미세먼지 상한선 좋아졌네라고 체감을 하실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김영옥> 그러니까 매해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것을 지금 모니터링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리고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라는 것도 국가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거를 통해서 실시간 측정 자료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자료를,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불구하고 방치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게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이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시작을 했고 그 관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작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농도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법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먼지의 농도는 과거보다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2016년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나쁜 정도의 상태를 유지했다면 그 이후는 법적인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졌을 때가 2021년과, 2022년이 PM2.5인 초미세먼지로 17 마이크로 퍼 큐빅미터 낮아졌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계절 동안의 평균값이 지금 2월까지의 값은 18.3 마이크로 퍼 큐빅미터로 조금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의 완화 때문에 경제활동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옮겨올 때 먼지 농도가 조금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후 3월달은 오히려 조금 예년 대비해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 아직 3월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자료들이 다 좀 누적이 돼 봐야 정확한 값들을 알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등에 의한 이후로 조금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걸로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고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PM2.5의 국가 기준이 15 마이크로 퍼 큐빅미터입니다. 그런데 작년이 17, 올해가 18.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기준을 달성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시켜보겠다고 해서 13 마이크로 퍼 큐빅미터라는 숫자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정책들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준도 달성하지 못한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왜 체감되는 농도들이 그렇게 급격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보다 월등히 낮은 농도부터 건강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준을 지켰다고 건강 피해가 없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도시 미세먼지 (PM-10) 오염도 [통계표]





#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2025년 07월 16일 수요일

날씨 흐림 ☁️

### 자료를 보고 느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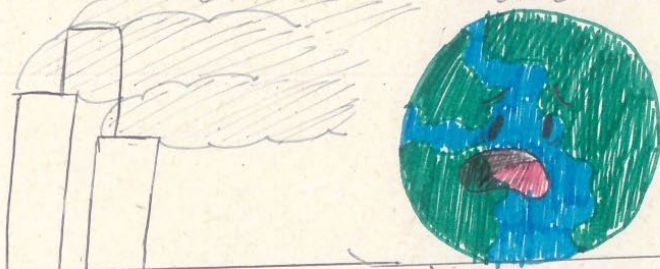
첫째, 등계와 계가의 리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와닿았다. 임영목 교수의 설명대로 미세 먼지 농도가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를 보였다는 등계는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세 먼지 상태가 좋아졌다고 체감하지 못한다는 이태호님의 지적에 공감했다. 쉽게 숫자는 좋아져서 우리가 느끼는 공기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정책과 국민 관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세 먼지 특별법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정책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실제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결국 환경 문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셋째, 코로나 19의 영향과 경제 활동 재개의 딜레마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 말파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올해 큰 미세 먼지 농도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2미세 먼지 국가 기준이 15µg/m³인데, 작년이 17, 올해가 18.3이었다는 건 여전히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건강 피해는 앞으로 더 강도 높은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미세 먼지 문제가 단순한 수치 개선을 넘어, 우리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복잡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다.



대기오염에서  
날 구해줘!

### <나의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 04. 분리수거하기

한일  
다 마신 페트병을 분리수거하여 버렸다.

느낀점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 보호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되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다음에도 분리배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의 종류를 더 자세히 살펴볼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과 종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연합뉴스

## [사이테크+] "섬 침입한 쥐 퇴치했더니...주변 산호초 생태계까지 회복"

입력 2025.07.09. 오전 5:00 수정 2025.07.09. 오전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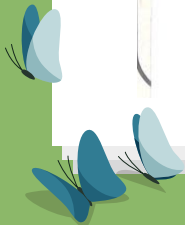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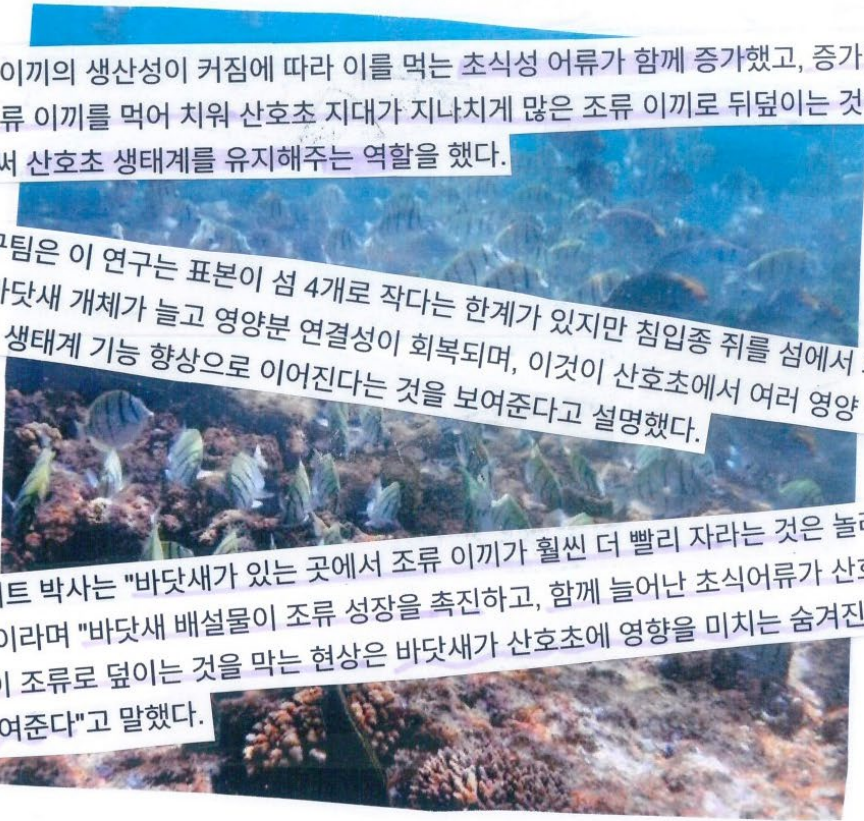
### | 英 연구팀 "세이셸 섬, 쥐 제거 후 바닷새 배설물로 산호초 회복 효과"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생태계는 미생물부터 동식물까지 다양한 구성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세이셸제도 섬 연구에서 외래 침입종 쥐를 제거하자 바닷새가 증가하고 배설물을 통해 먹이사슬 영양분 흐름이 복원되면서 산호초 생태계까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이끼의 생산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먹는 초식성 어류가 함께 증가했고, 증가한 어류는 조류 이끼를 먹어 치워 산호초 지대가 지나치게 많은 조류 이끼로 뒤덮이는 것을 막음으로써 산호초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표본이 섬 4개로 작다는 한계가 있지만 침입종 쥐를 섬에서 제거하면 바닷새 개체가 늘고 영양분 연결성이 회복되며, 이것이 산호초에서 여러 영양 단계를 거쳐 생태계 기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벤크위트 박사는 "바닷새가 있는 곳에서 조류 이끼가 훨씬 더 빨리 자라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라며 "바닷새 배설물이 조류 성장을 촉진하고, 함께 늘어난 초식어류가 산호초 지역이 조류로 덮이는 것을 막는 현상은 바닷새가 산호초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경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 알리사외지 중학교 3학년

HOME > 멸종 > 멸종위기

# 28%가 멸종 위기... 카운트다운 시작?

주 김혜인 기자 | © 승인 2025.03.11 16:06

### 인간이 만든 생물다양성 붕괴의 현실



서식지를 잃어가는 북극곰 (사진: Wikimedia Commons/뉴스핌)

[뉴스핌권 김혜인 기자] 전 세계 생물다양성이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보고서에 따르면 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멸종 속도는 과거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2023년 발표한 적색목록에서는 평가된 157,190개 종 중 약 28%인 44,0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생태계 위기가 아니라 인류 생존에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개발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멸종 위기를 초래한다. 기후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기후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기후 변화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기후 변화는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시가 곳곳에서 극적인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며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극 해빙음이 줄어들며 북극곰 같은 극지방 동물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또, 해양 수온 상승으로 산호초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다. 2009~2018년 사이 전 세계 산호초의 약 14%가 사라졌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1.5°C 온난화 시 90% 이상의 산호초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다. 전 세계 육지의 75%와 해양의 66%가 이미 인간 활동으로 변화되었고 1700년 대비 2000년까지 육지의 85% 이상이 사라졌다. 삼림 벌채와 농경지 확대, 도시화로 인해 자연 서식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열대우림 파괴가 대표적인 예로 아메존 열대우림의 17% 이상이 지난 50년간 사라졌다. 이는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나친 어획과 밀렵 그리고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는 수많은 종의 개체군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해양 생태계에서는 어류 남획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어종의 34%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남획되고 있는데 육상에서는 밀렵과 야생동물 거래가 많은 종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예를 들어, 전산간은 비늘 밀거래로 인해 지난 10년간 100만 마리 이상이 희생되었으며, 8종 모두 멸종위기로 지정된 상태다.

이처럼 각 대륙과 해양에서 나타나는 생물다양성 위기 사례는 결국 인류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생태계 서비스의 상실은 그 단적인 예다. 인간이 누리는 식량과 물, 깨끗한 공기와 질병 억제, 기후 조절 등은 모두 건강한 생태계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세계 식량 작물의 75% 이상이 콰벌 등 동물 매개 수분에 의존하는데, 곤충 감소로 수분(授粉) 서비스가 줄어들 경우 매년 2,350억~5,77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 생산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또 열대우림과 맹그로브 숲은 탄소를 흡수해 기후를 완화하고 해일을 막아주지만 이들이 파괴되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재해 피해가 커진다. 의학용 개발 측면에서도, 전 세계 의약품의 40% 이상이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생물다양성 손실은 잠재적 신약 자원을 가 잃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생태계 붕괴는 인류의 식량안보와 건강,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2025 년 07 월 16 일 수요일

날씨 흐림 

## 기사를 보고 느낀점

이 기사를 통해 생물 다양성 감소가 인류의 생존에 직결된 심각한 위기임을 깨달았다. 인간의 무분별한 토지 이용 변화와 남획, 밀렵이 엄청난 규모로 서식지를 파괴하고 수많은 종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글로벌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 위협이나 열대우림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가속화 등 생태계 서비스의 상실이 우리의 식량, 건강,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와닿았다.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다.

국제 사회의 노력이 있지만,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이 전일하다는 점을 우리의 지적에 공감한다. 우리 각자가 이 문제를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닌 '나의 생존이 걸린 일'로 인식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임을 강력히 느꼈다.

## 기사를 읽고 내가 해야 할 다짐.

-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 생활화  
과도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 환경 보전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 캠페인이나 관련 정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자원 봉사 등 직접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 일상에서 물, 에너지 절약, 올바른 분리배출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갈 것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  
내가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힘 쓸 것이다.

## <나의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 06. 안쓰는 방의 전등 끄기

한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을 끄다.

느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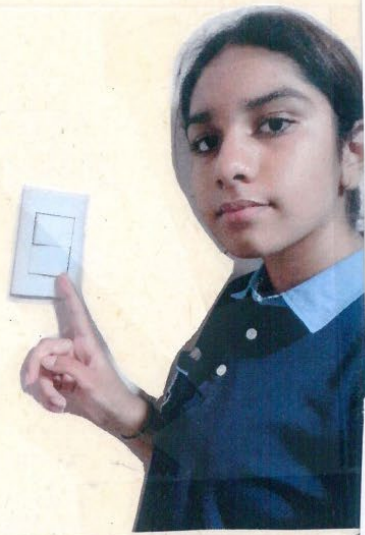
환경을 위해 전등 끄기를 실천하면서, 저는 무심코 낭비되던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방을 비우거나 낮에 불필요하게 켜져 있던 전등을 끄는 작은 행동이 상당한 전력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는 것을 넘어, 자연량이 주는 아늑함을 발견하고 빛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놀라운 노력이 아닌 작은 습관 하나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뿌듯함과 효능감을 느꼈으며, 이는 앞으로도 친환경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쉬다...



하하...



인 44,0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생태계 속에서 **구체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 아니라 인류 생존에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있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생태계 붕괴는 인류의 식량안보와 건강,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알리사외지 중학교 3학년



(사진 Freepix/뉴스픽)

이런 가운데, 생물다양성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국제 사회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COP15에서는 '문명-문토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계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 방지, 오염 간축 등의 목표도 설정되었다.

각국 정부는 보호구역 확대와 멸종위기종 복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기구들은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과 보전 재원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남획, 오염 등의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지금이 야말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다.



인간의 토지 이용 변화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다. 사진은 독자 이벤트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톨립아트코리아/뉴스픽)

김혜민 기자

저작권지 © 뉴스픽권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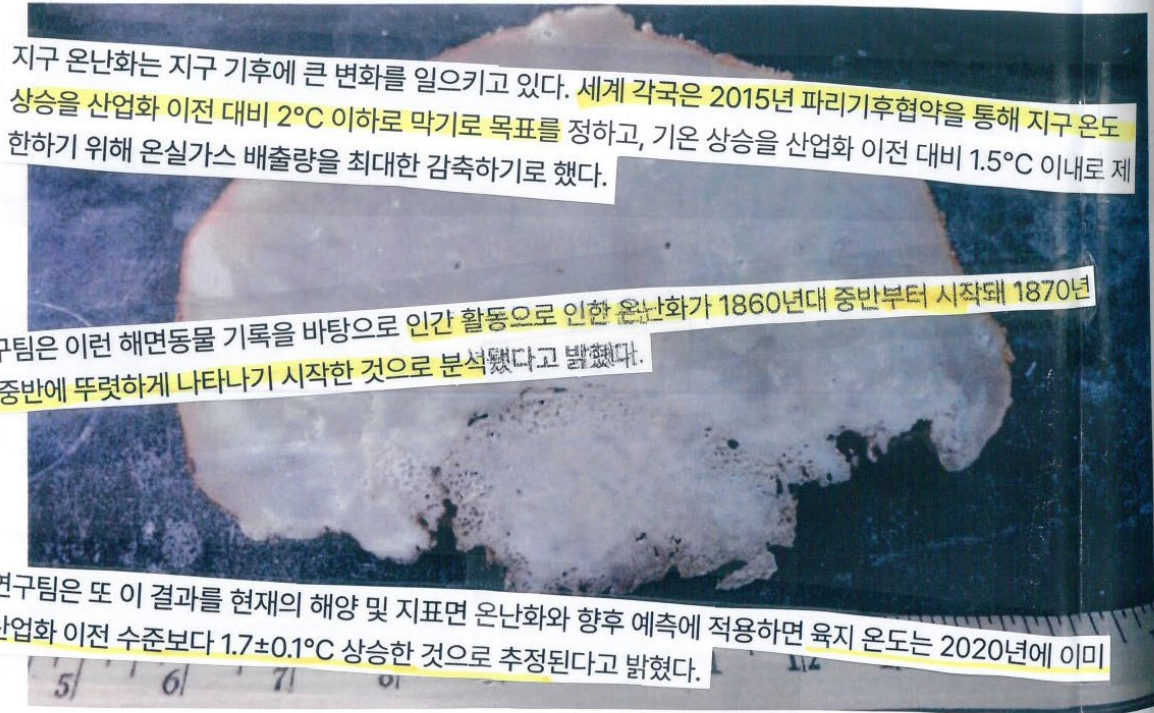


# "지구 온난화 이미 1.5°C 넘어섰다...10년 내 2°C도 돌파 전망"

송고 2024-02-06 02:00

호주 연구팀, 카리브해 해면동물 골격 이용해 300년간 바닷물 온도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 때문에 상승한 기온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이미 넘어섰으며,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대 말 파리기후협약 목표인 2°C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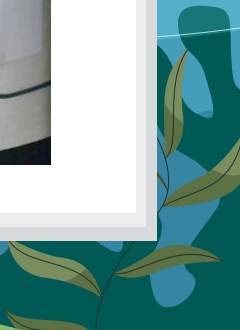


지구 온난화는 지구 기후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막기로 목표를 정하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이런 해면동물 기록을 바탕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난화가 1860년대 중반부터 시작돼 1870년 중반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이 결과를 현재의 해양 및 지표면 온난화와 향후 예측에 적용하면 육지 온도는 2020년에 이미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7±0.1°C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경화 해면동물 골격 표본  
연구팀이 동부 카리브해에서 채취해 분석한 경화 해면동물(Ceratoporella nicholsoni) 골격 표본. [Nature Climate Change/Malcolm McCulloch et a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기사를 보고 느낀 점.

이 기사를 통해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연구팀의 정화 해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이 이미 1.5°C를 넘어섰고, 이 때 말 2°C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난화 시작 시점이 기존 측정정보보다 약 80년 18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는 점과, 육지 온도가 이미 1.7±0.1°C 상승했다는 기록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한다. 이는 유엔 IPCC의 예상치를 넘어서고,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다.

기사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지 온난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강조한다. 이처럼 우리는 기후 변화를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광장 해결해야 할 위기로 인식하고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파리 기후 협약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 포집 기술 개발 등 건방진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개개인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작은 실천들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후 위기는 특정 국가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 없이는 해결될 때 비로소 희망을 볼 수 있다.

## <All의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 01.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한일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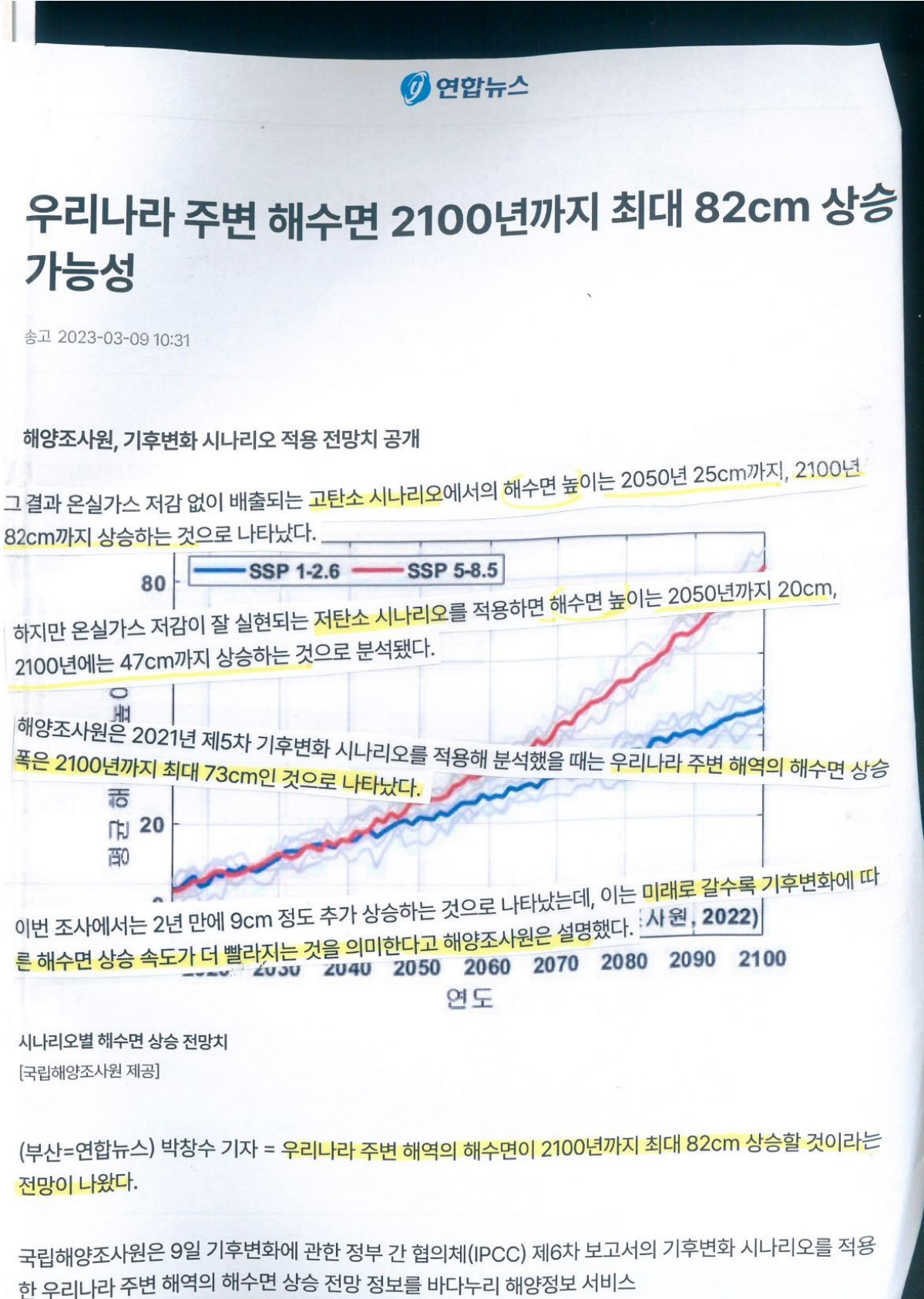
쓰레기 줍기 활동을 마친 후에는 단순히 깨끗해진 주변 환경을 보는 것 이상의 깊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눈에 띄지 않던 곳곳에 숨겨진 생생 이상의 쓰레기 병어였습니다. 평소 음식고 치내적인 길가, 공원 벤치 아래, 스톱 사에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병, 비닐봉투, 달배종, 알루미늄 캔 등이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

특히 자연 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우리 일상 속 무심한 소비 습관이 환경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지 실감하게 했습니다. 쓰레기를 하나하나 줍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특히 쓰레기를 주워 갖고 점차 깨끗해 지는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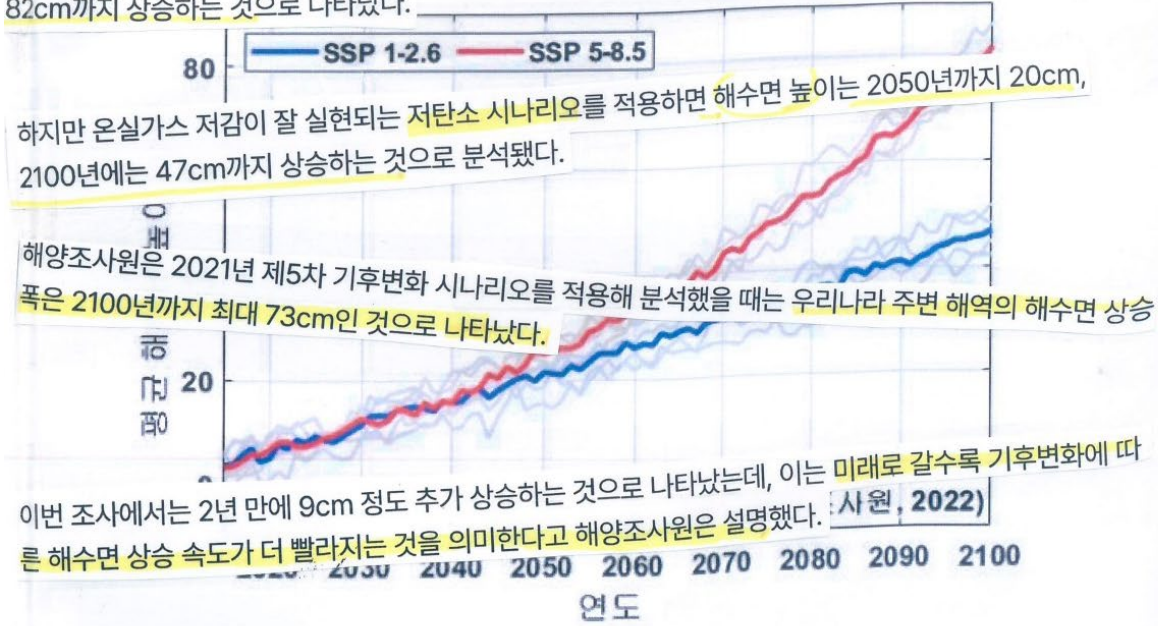
연합뉴스

##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가능성

송고 2023-03-09 10:31

### 해양조사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전망치 공개

그 결과 온실가스 저감 없이 배출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의 해수면 높이는 2050년 25cm까지, 2100년 82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현되는 저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 20cm, 2100년에는 47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조사원은 2021년 제5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 폭은 2100년까지 최대 73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2년 만에 9cm 정도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로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양조사원은 설명했다. (사원, 2022)

시나리오별 해수면 상승 전망치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상승 전망 정보를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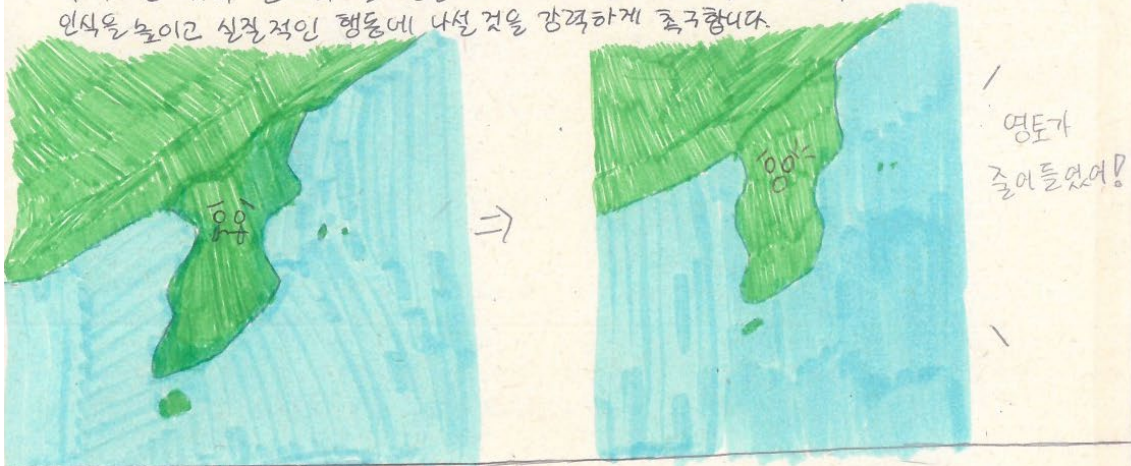
2025년 09월 16일 수요일

날씨 흐림 ☁️

## 기사를 보고 느낀점

제시된 기사를 읽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해수면 상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각심이다. 국립 해양조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이 2100년까지 최대 82cm 상승 할 수 있다는 전망은 충격적이다. 특히 2년만에 비특치가 9cm나 증가 상승했다는 점은 미래로 갈수록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편성로 보여준다. 또한, 서해보다 동해의 해수면 상승 폭과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될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해수면 상승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를 넘어, 연안 지역의 침식, 생태계 변화, 사회경제적 손실 등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이다. 국립 해양조사원장이 언급했듯이 이러한 해수면 상승 전망치는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해안가 저지대 도로, 방조제 건설, 배수 시스템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능빅터라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며,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 AI의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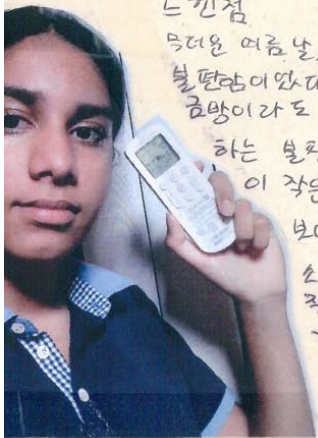
### 08. 에어컨 대신 창문 열기

현일

에어컨을 틀는 대신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와 시원해졌다.

느낀점

무더운 여름날, 환경을 위해 에어컨을 켤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역시 불편함이었다. 땀이 흐르고 답답함이 느껴지며, 시원한 바람에 익숙해진 몸은 금방이라도 에어컨 리모컨을 찾게 된다. 처음에는 '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불평 섞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능력, 지하를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풍기나 자연 바람에 의존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쾌적함을 위해 사용하던 에어컨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전기요금 '전약'이라는 직접적인 이점은 물론,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감이 서서히 불편함을 매케하기 시작 했던 것 같다.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HOME > 학술 > 호흡기/알레르기/감염

# [창간 22주년]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 박선혜 기자 | © 승인 2023.07.18 12:00

기후변화, 호흡기계·정신건강·심혈관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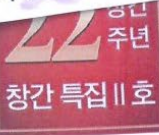
## 호흡기계



기후변화는 대기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기후변화는 대기질을 떨어뜨려 호흡기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산불과 황사 등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농도를 증가시킨다. 흡입 시 오염물질이 폐 깊숙이 침투해 폐 기능을 떨어뜨리며 염증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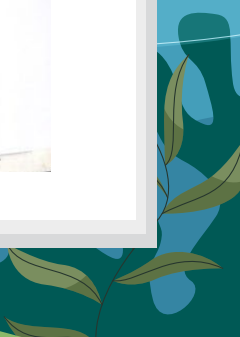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 산불, 홍수 등을 겪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기분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재난상황에 따라 대피 및 격리 등을 경험하고 생활환경이 여러 번 달라지면서 정서적 웰빙이 악화될 수 있다. 폭염은 자살, 자해, 공격적 행동뿐 아니라 정신질환 환자의 심리적 문제 및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됐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전례 없는 기후변화가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뜨거워진 지구가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며,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21세기 최대 과제로 꼽힌다.

기후변화란 지구 규모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부터 스백만 년 동안 대기의 평균 상태 변화를 뜻한다.

2025  
기사글  
특히  
있다  
익힘  
기  
않  
정  
이  
영  
인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2025 년 4월 17일 목요일 날씨 흐림 ☁️

기사를 보고 느낀점

특히 폭염이 자살, 자해, 공격적 행동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정신질환 환자의 심리적 문제와 사물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 변화의 영향을 주로 물리적인 피해나 생태계 변화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과 안녕을 좌우하는 정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이 기사를 통해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정신 건강 분야의 고려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앞으로의 다짐

기후 변화가 이토록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의 안일했던 생각들을 반성하게 된다. 더 이상 '누군가가 해결해줄 거야'하며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였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다짐한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며, 영수증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습관들을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리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힘쓸 것이다. 혼자서는 작지만,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 AI의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

09. 장바구니 사용하기

한일 환경을 위해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였다.

느낀점 환경을 위해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여러가지들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낱박하고 안가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마트에서 비닐 봉투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몇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장바구니를 항상 소지 하러 노력하면서,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는

향

흥기계에 악영향  
변지를 포함한 오  
어뜨리며 염증과

등을 겪은  
따라 대피  
이다.

험 증가와 연

거워진  
이대계가 힘

10년



# 양산신문

HOME > 학생시민기자

## 기후위기 속, 달라진 우리의 학교 생활

✎ 김지하 학생기자 | © 승인 2025.07.16 07:40

### 2명중3 학급특색활동 #병뚜껑으로 만든 친환경 키링

기후 문제는 더 이상 과학책 속, 기사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향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 생활의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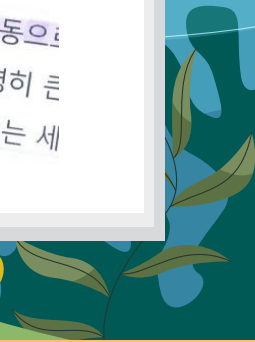
올해 5월, 우리 학교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운동장 활동을 줄였으며 체육대회 중 더위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었다. 학교 생활 중 "폭염 시 행동 수칙" 안전 교육을 하는 것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안전안내 문자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1 바닷속 친구들  
아니라,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 야외 활동 자제 방송이 나오는 일도 흔해졌다. 예전에는 당인 바깥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교실에만 오래 머물게 되면서 답답함이나 피로를 느끼는 친구들도 이런 변화들을 겪으며, 우리는 단지 '날씨가 이상하다'는 것을 넘어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느끼는 중이다.

디자인 • 거북이, 돌고래, 펭귄(입체), 북극곰(입체) 4종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처럼, 사소한 실천일지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그저 '기후위기를 겪는 세대'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산신문





# 알리사외즈 중학교 3학년

2025년 07월 17일 목요일

날씨 흐림

## 기사를 보고 느낀 점

기후 변화가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동시에,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 현실은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바깥 활동이 점점 사라지고 교실에만 머무르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점은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불필요거 철저히 하기, 불필요한 2명 끄기, 음식 남기지 않기 같은 작은 실천들은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또한 환경 동아리 참여나 친구들과의 캠페인 기획, 그리고 병독깡 친환경 키링 만들기 같은 구체적인 사례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개인의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분명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단순히 '겪는' 세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대라는 점을 잊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나의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 10. 식물 키우기

한일

인터넷에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많이 찾아보니 식물을 키우는 것도 환경에 좋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것 또한 환경을 지키는 실천 방법이라고 하여 새로운 도전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느낀 점

환경을 위해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과연 잘 키울 수 있을지 막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작은 라블 허사를 들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예상을 못했던 만큼은 긍정적인 변화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